

# 경제 규모10위국 중 한국 경제 회복속도 가장 빨라

지난 1분기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가운데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조세일보'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1.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1분기 실질 GDP 규모는 470조 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돼 코로나19 위기 직전인 2019년 4분기 468조 8,000억 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1분기 1.6% 성장은 국제기구·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를 훨씬 뛰어넘은 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국제기구·글로벌 투자은행들의 1분기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0%대 후반에서 1%였다. 이러한 전망이라면 실질 GDP 규모 회복은 2분기에나 가능할 전망이었는데, 한 분기를 앞당겨 1분기에 위기 이전 수준을 돌파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 규모 10위 이내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다." 고도 했다. 2019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GDP 백분율은 한국이 100.4로, 미국(98.9)·캐나다(98.1)·일본(97.7) 등을 앞섰다.



▲ 부산 컨테이너항 모습. 사진=shutterstock

기재부는 "4월 국내 경기회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해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인 3.2%를 넘는 성장 경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올렸고,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도 지난 27일 기준 4.1%에서 4.6%로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1분기 성장률 1.6%는 예상치를 웃돌았다."며 "1분기에 수출과 내수가 모두 견고하게 증가하면서 수요와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기대 이상의 폭넓은 성장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 영재학교 학생 의대 진학 시 불이익 준다

내년부터 전국 8곳의 영재학교 입학생은 의대 진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는 영재학교에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영재학교에 다니면서 의대 진학을 희망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학교·광주과학교·대구과학교·대전과학교·서울과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등이 포함된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영재학교 학생 의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의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대입 관련 상담·진학지도 등을 하지 않고 일반고 전출을 권고한다.

그럼에도 전학을 거부하고 의학계열 진학을 고집하면 영재학교에서 했던 연구, 창의 활동 등의 내용을 학생생

활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또 정규 수업 시간 외에는 기숙사,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교육비와 장학금도 환수한다. 현재 영재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학생 1인당 연간 약 500만 원 수준으로 일반학교(158만 원)의 3배가 넘는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했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라면서 "영재학교 학생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해 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분기 국내 인구 이동 8년 만에 최대 감소

올해 1분기(1~3월) 한국의 국내 인구 이동이 같은 분기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연합뉴스'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1년 3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이동자 수는 207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5% 감소했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3년 1분기(-6.0%)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6.4%로 0.8%포인트 줄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4.7%, 시도 간 이동자는 35.3%였다.

1분기 국내 인구 이동이 줄어든 것은 1~3월 연속으로 이동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3월 이동자 수는 73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 꾸준히 증가추세였던 이동자 수는 올해 1월(-2.2%) 감소로 돌아선 뒤 2월(-9.6%), 3월(-4.0%)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주택매매가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하고 2~3월 입주 예정 아파트도 10.3% 줄어든 것이 이동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많아 이동자 수가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분기 인구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5만7천92명), 세종(4천306명), 제주(695명) 등 5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고 서울(-2만6천71명), 대구(-7천518명), 울산(-5천460명) 등 12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이 중 서울은 3월에만 인구 6천216명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갔다. 서울 인구 순유출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및 접수 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